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36 호





# 사막의 꽃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에겐 그 무엇도 아름답게 보인다.  
스승님은 사막의 꽃에서조차 소박한 기쁨을 느끼신다.

청하이 무상사/ 1994. 3. 9.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409

이 그림은 '사막의 꽃'입니다. 매우 보기 드문 꽃이지요. 이 꽃을 보려면 사막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막마다 다 이런 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막마다 꽃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막에는 푸르스름한 꽃만 있습니다. 한 사막에만 이런 붉은 꽃이 핍니다. 이 꽃은 매우 아름다워 마치 우리들 집에서 키우는 꽃처럼 보입니다.

이 꽃은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만 말라 보일 뿐 시든 건 아닙니다. 속은 새파랗게 살아 있지요. 부러뜨려 보면 속이 파랗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막의 꽃들은 이렇습니다. 모든 꽃들은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과 형태를 지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외면이, 때로는 내면이 달라 보입니다. 내면의 영혼, 영원한 진아가 달라 보인다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과 배경에 따라 형성된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을 말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사막의 꽃처럼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이나 풍경의 인상만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미들을 그려 내지요. 사막의 꽃은 특이한 환경에 처해져 겉보기엔 좀 낯설고 약간 특별해 보이며 우리와는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 같은 사람 말이에요!



사막의 꽃(파스텔화) - 청하이 무상사 -

Desert Flowers





수행자는 모든 인과와 업장의 기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보다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6호

출판일자 : 2002. 11. 30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  
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뒤표지 무상예술

사막의 꽃/ 낭만적인 SM 천의 남성복/ 최신 만세등

## 2 다채로운 이벤트

프랑스/ 스위스/ 영국/ 호주/ 페루/ 미국/ 일본/ / 대한민국  
마카오/ 인도네시아/ 포모사

## 10 행사 메모

## 11 신기한 감응

가장 놀라운 삶의 순간-화신 스승님과과의 만남

## 16/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MP3/ DVD/ CD

## 17 수행의 길목에서

예고의 극복

## 1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완의 순간 깨달음은 온다

## 20/ 24/ 36 감로범어

## 21 골라 뽑은 수행문답

깨달음 스승의 인도는 수행에 필수적이다/ 자신의 이상을 견지하라  
성인이 되려면 한 가지 범문에 전념하라

## 25 인터넷 속 작은 이야기

역경을 떨쳐 내라

## 26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일본 검도 스승 이야기

## 27 영화 이야기

스피어(Sphere)-생각의 힘에 얽힌 교훈적 이야기

## 28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 29 스승님의 농담

획기적인 주차 방법/ 할머니의 집은 어디인가/ 늙은 생강이 매운 법

## 30 수행과 생활

농사를 통해 얻은 생활선(生活禪)

## 32 이야기 세상

만물동일체(萬物同一體)/ 수정세계의 밤/ 쉼 없이 일하시는 스승님  
스승님의 노트/ 재미있는 우리 스승님

## 37 예술과 영성

독일의 유명 여배우 하이드마리 벤젤 씨와의 인터뷰

## 39/ 41 지혜어록

깨달음의 상태/ 독립심을 배우라

## 40 스승님 말씀

자아의 완벽한 본질을 믿으라

## 42 사랑의 실현

홍콩/ 필리핀

## 43 감사 편지

필리핀 팔라완 쿨리온

## 44 관음 웹사이트

## 45 전세계 연락처



## 프랑스 소식

### 영성의 기운이 예술의 도시에 스며들다

[파리] 2002년 6월 프랑스 동수들은 파리 센터에서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프랑스어판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연락인은 이 파티에 동수와 예비 입문자, 번역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친구와 친척들도 초대했다. 새로 출간된 이 훌륭한 간행물은 전세계 프랑스어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접할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출판 기념회에는 채식요리 강습 시간도 마련되어 동수들은 정통 프랑스 요리와 아시아 요리법을 시연해 보였다.



▲ 동수들은 프랑스 남부의 한 아름다운 마을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해피요기 전원 패션쇼’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한 영적 스승의 풍부하고 다원적인 창조력과 그 제자들의 행복하고 개방적인 수행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 스위스 소식

### 제네바 도서 전시회에 충만한 스승님의 미소


[제네바] 2002년 5월에 열린 제네바 국제 도서 전시회에 참가한 제네바 센터 동수들은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프랑스어판을 비롯해 다양한 유럽 언



어로 번역된 스승님의 경서와 비디오 테이프, DVD를 부스에 전시했다. 몇몇 파리 동수들이 전시 준비를 돕고 런던, 로마, 파리, 뮌헨 센터 등에서 부스에 전시할 책과 비디오 테이프, 견본책자를 지원해 우리 부스는 풍부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다.

제네바 센터의 부스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기쁨이 넘쳐흘렀고 스승님의 매력적인 미소가 사방에 가득했다. 국제 도시 제네바의 다양한 민족 및 종교적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들러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그 중에는 1993년 순회 강연 당시의 스승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관음법문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들도 있었다.

또한 동수들은 이번 전시회에 처음 참가한 스위스 채식협회 회원들과 따뜻한 교류를 나눴는데, 그들은 스승님이 채식을 장려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기뻐했다. 스위스 채식협회 회원들과 제네바 동수들은 서로 견본책자를 교환하며 앞으로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기로 약속했다. 이 외 우리 옆 부스였던 이슬람 출판사 대표들도 여자 스승에 대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전시회에서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 테이프에 둘러싸여 일한 동수들은 마치 선에 참석한 듯 매우 강렬하고 고양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에너지는 명상에 관심이 있고 또한 스승님의 가르침과 살아 있는 스승의 인도에 대해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열중해서 보고 있다.




제네바 비디오 세미나에 참석한 손님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해 동수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다.

## 비디오 강연회 -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2002년 6월 제네바 동수들은 또 다른 비디오 강연 홍보활동을 펼쳤다. 세미나에 앞서 동수들이 론(Rhone) 강 다리의 가로등 기둥마다 스승님의 포스터를 붙여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몇 미터마다 스승님의 미소 띤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동수들은 이 다리를 '칭하이 교(橋)'라고 이름 붙였다!

강연회 당일 참석한 한 젊은 여성은 우리에게 자신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가족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 왔는데, 싸움을 할수록 그녀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결국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의 인과임을 깨닫고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이 두 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동수들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홍보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만 그 중 극소수만이 살아 있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은 적든 모두들 명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 영국 소식

### 영성의 꽃이 만발한 런던

[런던] 2002년 6월 14일 런던 중심부의 유스틴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한 런던 센터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방편법을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경서를 전시하는 동수와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수해 지역 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스승님의 사진을 걸고 비디오 테이프와 예술 창작품으로 꾸민 강연장은 스승님의 축복이 한껏 느껴지는 가운데 환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나자 엄청난 질문이 쏟아졌으며 이에 모든 답변을 마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답변을 한 동수는, “세상에, 내가 단상에 서니 그렇게 지혜로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며 농담을 던졌다. 신의 축복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30여 명이 방



질의응답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동수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오랫동안 풀어 왔던 많은 의혹을 풀었다.

편법을 배웠으며 방편법 전수 후 30분 간의 명상 시간 동안 모두들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빛에 깊이 젖어들었다. 명상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맛있는 축복음식과 풍성한 디저트, 다양한 음료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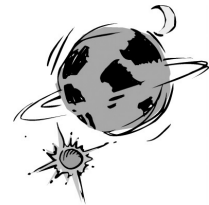
사랑이 넘치는 화기에אה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포용하고 축복하며 이 잊을 수 없는 밤을 마무리했다. 마치 지난 수년 간의 수행이 그날 밤에 갑자기 만개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 호주 소식

### 벨코넨에서 열린 즐거운 비디오 강연회

[캔버라] 캔버라 동수들은 관음사자의 도움을 받아 2002년 4월 20일 벨코넨 공공도서관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강연에 관심을 보이며 관음법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문의했다. ✨







## 페루 소식

### 페루 곳곳에 스승님의 사랑이 퍼지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은 페루의 한 비디오 강연회.

【페루】 최근 관음사자의 방문을 맞아 페루 동수들은 푸노, 수도 리마의 위라코차(Wiracocha) 공원, 치클라요, 찬카이 등 네 곳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많은 구도자들에게 관음법문의 복음을 소개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강연회는 큰 성공을 거두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방편법을 배운 참석자들도 훌륭한 체험을 했다. ★



선과 입문식을 끝낸 모든 동수들은 만면에 만족감과 큰 기쁨을 나타냈다.

관음사자와 페루 동수들은 경치가 좋은 장소에서 선이와 입문식을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곳은 스승님의 축복으로 충만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 산타로사 건강과 화합 페스티벌

【산타로사】 2002년 6월 8일과 9일 산타로사 카운티에서 명성 있는 건강 박람회인 ‘건강과 화합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에 산호세 동수들은 샌프란시스코 센터와 함께 부스를 설치했다. 육체 및 정신 건강을

통한 영성의 저변 확대라는 이번 축제의 이념을 반영이라도 하듯 행사는 매우 활기차고 영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우리 부스에 걸린 스승님의 대형 법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다른 부스들 사이에서 확연히 돋보이는 요소이기도 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방문객들에게 열렬한 호





응을 받았다. 그 중 셔츠도 입지 않고 수염을 기른 한 남자는 뭔가 감회 어린 표정으로 스승님의 법상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어서 동수의 시선을 끌게 되었다. 그는 아무 목표 없이 이 행사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들이 많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스승님의 법상에 이끌려 우리 부스에 오게 된 것이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슬픈 사연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5년 전 그는 남부럽지 않은 결혼생활을 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채식 주의자로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채식요리를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위 ‘머나먼 곳에서 온 스승’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스승으로부터 수행 진보를 하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는 얘길 듣게 되었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 스승의 말을 믿었고 수행 진보는커녕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는데, 참다 못한 그의 아내의 말대로 집을 나와 오갈 데 없는 노숙자가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아내는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집에 와 목욕하게 하는 등 그를 돌봐 주었다.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 버린 그에게는 아내가 유일한 ‘신’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칭하이 스승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짜 스승을 만나기 전인 듯하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스승님의 법상을 보자 그는 굉장한 인연을 느끼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 되었다!



부스에 걸린 스승님의 대형 법상이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굽어보시는 가운데 동수들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고 경서를 전시하는 일 외에도 부스를 찾은 손님들을 위해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관음법문 웹사이트 주소가 적힌 카드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

었다!

스승님이 ‘즉각개요, 일세해탈’의 법문을 전해 주시는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동수로부터 받은 견본책자를 소중하게 살펴보면서 언젠가 관음법문을 수행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



## 미국 메사추세츠 소식

### 캠브리지에 진리와 사랑을 나누다

[보스턴] 보스턴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있어 2002년 6월 15일은 매우 의미 깊은 영적인 날이었다. 보스턴 동수들은 지난 수년 간 그랬듯이 이 날 1년에 한 번 열리는 ‘캠브리지 찰스 강변 축제’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에게 채식의 홍보하고 수행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장으로 활용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에도 몇몇 사자들은 견본책자와 채식음식, 그리고 이날 있을 비디오 강연회를 알리는 전단지들을 열심히 나눠 주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명받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진실하고 긍정적인 확답을 얻어냈다.

축제가 끝난 후, 동수들은 스승님이 1991년 강연하신 바 있는 하버드 대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캠브리지 찰스 강변 축제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동수들이 준비한 풍성하고 다양한 채식음식에 관심을 갖고 스승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학교 엔딩도서관에서 모여 비디오 강연회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로 보스턴 동수들 단독으로 준비하는 흥법활동이었다. 동수들은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행사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저녁으로 단체명상을 하며 기도했다.

이번 강연회는 비록 일주일 만에 기획, 준비되었지만 순조롭고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다. 열렬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많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게다가 참석자 모두 방법을 신청하기도 했다! 



## 일본 소식

### 각광을 받고 있는 채식 휴양촌




[치바] 일본은 채식의 개념이 아직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 동수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채식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가 최근 몇몇 동수들의 노력 끝에 치바 현의 다테야마 시의 아름다운 해변에 리키겐(力源) 휴양촌을

열었다. 이 휴양촌은 한쪽으로는 산으로 접해 있고, 앞으로 5분만 걸어나가면 바다가 펼쳐지는 450평 규모의 아름답고 조용한 곳으로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 달콤한 바다 내음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다양한 채식요리와 숙박시설, 테니스장 등을 제공한다. 또 동수들을 위한 단체명상 건물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리키겐 휴양촌을 건설하는 동안 동수들은 이웃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큰 힘을 얻었는데, 이웃 중에는 채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두 여성은 스승님의 생신을 맞아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 오기도 했다. 음식을 먹거나 휴일을 보내기 위해 리키겐 휴양촌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자진해서 스승님의 전본책자를 가져가고 스

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묻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바닷가 휴양촌에는 해산물 음식점이 많은 편인데 이 지역에서 리키겐 휴양촌은 금연, 금주, 채식을 표방하는 매우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곳의 맛있는 순수 채식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요리사들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일본 동수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 다도시연회, 채식요리 강좌, 무료 채식 시식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리키겐 휴양촌 연락처

주소: Pension Rikigen

86-1, Hasama, Tateyama-shi, Chibaken, Japan 294-0307

전화: 81-470-20-9127/ FAX: 81-470-20-9128



## 대한민국 소식

### 2002년 서울 국제 도서 전시회 흥법기

[서울] 2002년 서울 국제 도서전시회가 6월 7일부터 14일까지 2000년 스승님 강연회가 개최되었던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서울 센터 동수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대중과 함께 나누었다.

전시회에서 한국 동수들은 전자책과 전자 도서관 등 새로운 형태의 스승님 출판물을 소개했다. 선진적인 장비를 통해 비디오 테이프에 한국어 더빙을 하고, 이 행사를 한국 관음법문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이런 생방송은 전문 방송과 맞먹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6월 10일, 한국과 미국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 모두의 이목이 그 쪽으로 쏠려 있을 때, 하늘이 내려 주신 비로 거대한 인파가 전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축구 방송을 생중계하자 예상 밖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로 찾아오게 되었으며, 경기 관전이 끝난 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계속 남아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했다. 그 결과 스승님의 이름도 들어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문의했다. 동수들은 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렸다!



TV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의깊게 시청하고 있는 방문객들.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한국 동수들이 2002 서울 국제 도서 전시회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많은 새로운 변화를 꾀했던 올해 전시회를 통해 방문객들은 큰 즐거움을 맛보았으며, 동수들 역시 실질적이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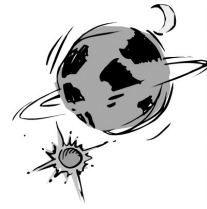


서점 못지않게 풍부한 스승님의 경서들은 전시회를 찾은 수많은 구도자들을 만족시키고도 남았다.



## 마카오 소식

### 아름다운 결실을 거둔 채식 홍보 활동



[마카오] 마카오 동수들이 2002년 3월 말 마카오 주변 4개 지역 도 서 전시회에 참석한 후 마카오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이 많이 알려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채식에 대한 미비한 이해로 관음법문 수행을 미루게 되자, 동수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널리 채식을 알리기 위해 채식요리 강좌를 여는 한편 상하이, 광둥, 후베이, 어울락, 마카오 요리 등 각 지역 고유의 풍미를 갖춘 다양한 채식 뷔페를 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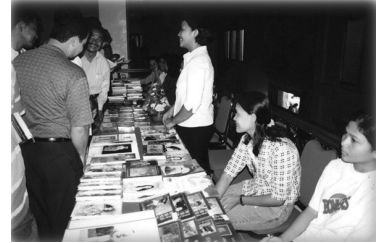
이 뷔페를 통해 동수들은 요리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요리법을 배울 기회를 가졌으며, 손님들 역시 채식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일부 참석자들은 바로 방편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는 희 생정신만 있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라고 하고 해도 홍보의 목 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인도네시아 발리 소식

###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자



풍성한 스승님의 출판물이 강연회 참석자 들의 눈과 마음을 밝히다.

[발리] 2002년 5월 19일 덴파사르 센터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약 800명이 참석해 그 중 200명 이상이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이번 행사는 원래 덴파사르 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부득 이 장소를 변경해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동수들이 모 든 일정을 재안배해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이를 공지할 수 있었 다. 자카르타, 말랑, 수라바야 등지의 많은 동수들이 찾아와 즐겁게 준비 작업에 동참하는 등, 비입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번 강연회가 순 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동수들은 발리가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고 이곳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 교의식과 관습을 고집하고 있어서 이번 강연회가 많은 관심을 얻을지 확 신하진 못했지만,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리라는 강한 믿음을 바탕 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며 모든 결과는 신의 뜻에 맡겼다. 그런데 행사 당

일 강연장은 예상치 못한 인원으로 만원을 이뤘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많은 참석자들이 “관음법문이 발리의 기존 종교의식과 대치되지 않는 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이에 대 해 동수들은 “관음법문은 이 지역 의 종교를 더 잘 이해하고 각자의 종교 스승들과 보다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대답해 청중들로 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지역 매체들이 발리의 스승님 비디오 강연회를 보도하다.

몇몇 사람들이 스승님을 직접 뵙고자 갈망하며 왜 스승님이 이번 강연회에 오시지 않았느냐고 묻자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언젠가 이곳을 방문하시도록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고 답변했다.

이 신실한 기도 속에



발리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주의 깊게 시청하고 있다.

강연회는 아름답게 막을 내렸다.



## 포모사 소식

### 단오절의 예술 향연

[타이난] 단오절인 6월 15일 타이난 센터 동수들은 타이난 아트



센터의 초청을 받아 아트센터 휴일 광장에서 예술과 영성을 접목시킨 문예 공연을 선보였다.

동수들은 춤과 음악을 통해 수행

의 즐거움과 감동을 표현하고 또한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천의와 만세등을 전시하여 이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술미를 통해 수행의 길로 들어서길 희망했다.



열성적인 관람객들로 인해 견본책자와 뉴스잡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일부 관람객들은 측석에서 자료들을 읽으며 스승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이번 활동은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제67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웹사이트: <http://137.hichannel.com.tw>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 가장 놀라운 삶의 순간

## -화신 스승님과 만남

스승님과 동수들의 다과 모임  
2002. 2. 12.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중국어)

관음법문을 수행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갓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엄청난 신의 축복을 한번에 견뎌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시간만 명상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늘려 가면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수행 끝에 8시간, 18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24시간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입문자들은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엄청난 신의 힘을 견디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힘이 원래부터 우리 것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조절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너무 많이 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두세 시간만 명상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편법 수행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행에 욕심 낸다고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행을 더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히말라야의 큰스승들은 하루종일 수행합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이나 18시간 정도 명상하지요. 그래서 신

통력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금방 또 사라집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만질 때처럼 만져지기도 합니다. 옆에 앉은 동수들을 만져 보세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어쩌면 화신일지도 모르니까요. (대중 웃음) 이런 큰스승들은 경지가 매우 높아 천백억 화신을 나눅니다. 수행을 아주 많이 해서 자연스레 그렇게 변한 것이지요.

수행을 많이 하면 왜 그렇게 변할까요? 그건 우리의 신체와 세포들이 진화하고 우리의 영도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순환의 체계 속에서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수백만 년은 걸리지만,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2, 3주만 수행해도 보통 사람이 몇 생을 수행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우주의 순환 시스템에 휩쓸리는 것뿐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는 일반 사람이라도 아낌없이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착하게 살며 영겁의 세월이 지나면 이 정도는 도달합니다.

관음법문에는 수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신구의리를 청정히 하는 것 등등 외에도 ‘관음’과 ‘관광’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체 진화의 체계 속에서도 자신을 고양시키게 되지요. 인간은 원래 아주 조잡한 존재였습니다. 신체 세포와 두뇌 역시 매우 조악했지만, 점점 진화하면서 현재의 총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에는 더욱 총명한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매우 영적하게 되며 신통도 생깁니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신통이 아닌 ‘함’이 없이 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신통이 생기지요. 이 법문을 많이 수행할수록 우리는 더욱 발전해 높은 경지의 사람이 되며 진화의 시스템 속에서 매우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랜 옛날 이 행성에 인간이 처음 출현했을 때, 어떤 이들은 고릴라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과 행동도 똑같았지요. 그 당시의 인류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차츰 진화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했다면 몇 단계를 건너뛰어 이렇게 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리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미신적이거나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안에는 우리를 진화시키는 일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속력을 높이지 않아도 이 시스템은 느리기는 하지만 진행될 것입니다. 관음법문은 이 시스템의 기능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갓 수행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만 해도 충분하지요.

히말라야의 수행자들은 하루종일 수행하며 수시로 삼매에 듭니다. 그 결과 신통력이 커지고 모습이 변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데,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동수들은 명상 중에 또는 집에서 화신 스승을 볼 수 있는데, 때로 화신 스승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체험을 통해 스승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눈을 뜨고서도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듯이 화신 스승을 보고 악수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화신 스승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머물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니, 한두 마디만 하고는 떠납니다. 그 동수들은 수행 동안 관음법문을 수행했거나 인생에서 매우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문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많이 수행할수록 더욱더 위대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진정으로 수행의 이로움을 알게 된다면 때론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한곳에 숨어 수행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주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거지처럼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수행해도 됩니다. 아마도 아주 많은 생이 지나면 우리의 신통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요가난다의 이야기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중: “예.”) 그의 스승인 바바지는 수시로 왔다갔다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절대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바지는 때로 화신으로 제자의 집에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졌는데, 그러면 제자는 그때서야 스승이 간 것을 깨닫곤 했지요. 바바지는 아주 오랫동안 수행해서 바람과 비, 태양, 공기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스승들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길을 걷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날 것도 없이 공기 속으로 그냥 숨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화신을 보려면 그만한 공덕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우리 동수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화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화신 스승을 봤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대중: “예.”) 당신이 봤나요? 내면의 스승이었나요, 아니면 육신의 모습이었나요? (사저 A: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아마도 그와 대화를 나눌 만큼 경지가 높지 않았나 보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거예요! 더 많이 수행하면 화신 스승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겁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만질 수

도 있었나요? (사저 A: 화신 스승님이 제게 고개를 돌려 웃어 주셨지요. 당시 같은 버스를 탔었습니다.) 버스를 같이 탔다고요? 내가 정말 불쌍한 처지였군요! (대중 웃음) 당시 제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돈이 없었나 봅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 이야기를 다시 해봐요. 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우리가 왜 웃는지 모릅니다.

**사저 A:** 8년 전이었습니다. 신주행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스승님을 뵈었습니다. 스승님은 저와 대각선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겨우 한 좌석 거리였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스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종리를 지나서 룡탄에 도착하자 스승님이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길을 건너시더니 고개를 돌려 저에게 웃어주셨지요. 그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네!’ 다음날 저는 같은 곳에서 포스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히말라야에서 온 큰스승이 강연하러 온다고 써 있었어요. 그때 포스터에 있는 사람이 어제 본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스승님: 그때 ‘그녀’는 아마 강연을 위해 버스를 탔나 보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사저 A:**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까이 사는 한 사저에게 물으니, 스승님은 당시 안거 중이셨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스승님 혼자 여행하셨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맞아요. 나는 ‘그녀’가 포모사에서 버스를 탔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을 수는 있지요! (대중 웃음) 아니면 ‘그녀’가 몰래 버스를 타고 나서 나에게 알리지 않았던가요. (스승님 웃음) 입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화신 스승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선 동수가 되지요.

**사저 B:** 아마 7, 8년 전이었을 겁니다. 한번은 집에 돌아오니 세든 사람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어쩌면 좋아요! 방금 전에 당신 스승님이 다녀가셨는데!

(대중 웃음) 내게 ‘배고프지 않아요? 밥은 먹었나요?’ 하고 묻기에 배고프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했더니, 당신 스승님은 ‘꼭 먹어야 해요. 이리 와요. 당신을 위해 쌀을 씻어 밥을 해줄게요.’ 하시더군요. 정말 그녀는 대단해요! 당신이 쌀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알고 있던걸요!” (대중 웃음) 제 세입자는 당시 스승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사양했다면서, “정말 안타깝네요. 때를 못 맞추다니, 정말이지 안됐어요”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사람이 화신 스승님이라는 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스승님: 그녀가 스승이 지은 밥을 못 먹은 게 안된 일이에요. 당신 자신은 보지 못했나요?

**사저 B:** 예. 하지만 스승님이 저희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합니다!

**사저 C:** 스승님, 이건 제 체험이 아니라 어떤 사저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웃은 80세도 넘었는데 최근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 그 사저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4,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당시 그는 일본에 징병되어 필리핀 마닐라에 보내졌는데, 배가 깊은 해구를 지나다 바다 깊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신 스승님이 와서 그를 깊은 바닷속에서 구해 내 살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감로법어의 스승님 사진을 봤을 때 스승님이 바로 과거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스승님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사저 D:** 스승님, 이건 제 시아버지의 체험입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한번은 화신 스승님이 그를 보러 오셨답니다. 그때 스승님은 하얀 옷을 입고 계셨는데, “내가 누군지 압니까?” 하고 물으시기에 시아버지는 “할머니잖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중 웃음) 스승님이 “다시 잘 보세요”라고 다시 말씀하시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니, 아들의 칭하이 스승님이었군!’ 그런 후 스승님은 “건강을 잘 돌보세요.





병은 곧 나를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해서 계속 울었는데, 어느새 스승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겠다는 전화를 받고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사저 E:** 10년도 훨씬 전 일입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오랫동안 그 주위를 빙빙 돌았지만 도저히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스승님이 나타나셨는데, 관음보살의 옷차림을 하신 스승님의 사진 모습과 똑 같았습니다. 화신 스승님을 따라가다 보니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잘됐네요!

**사저 E:**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을 샀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 체험이 있는 후 스승님이 그 옷을 입으셨더군요.

스승님: 흰옷을 입은 사진 속의 내가 당신을 인도했다고요?

**사저 E:** 예!

스승님: 체험을 한 사람이 정말 많군요! 오늘 나온 애기들은 화신 스승이 현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걸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명상 중에 본게 아니지요. 명상 중에 보는 것은 내면의 경계이고, 화신 스승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물질세계의 경계로서 이걸 명상 중에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는 스승이 위의 경계에서 내려온 것이고 명상 중에 스승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높은 경계로 올라간 것을 뜻합니다. 눈을 떴는데도 스승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승이 여러분과 교통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육체의 스승은 올라간 것도,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이걸 그냥 ‘다과회’의 경계인 셈이지요. (스승님과 대

중 웃음)

**사형 A:**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둘 다 제 체험은 아닙니다. 하나는 처조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장모님이 갓 입문했을 때 하루는 손자를 데리고 타이베이 청소년 공원에 가셨는데,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동안 장모님은 근처를 둘러보며 이리 저리 돌아다니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그가 울면 길 잃은 아이인 걸 알고 나쁜 사람들이 데려갈 테니까요.

스승님: 아이가 몇 살이었나요?

**사형 A:** 한 네다섯 살쯤 되었을 겁니다. 아이가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 화신 스승님이 오셔서 말을 건넸습니다. “나를 따라오렴. 울지 말고!” 아이는 스승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쯤 들르자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지요. 아이는 할머니에게 “방금 스승님을 뵈었어요. 스승님이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화신 스승님이 저희 집 주변에 나타나신 것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꿈에서 화신 스승님이 절 시험하시거나 일어나라고 깨우셨던 일만 있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또 다른 이야기는 신주의 한 사저의 체험입니다. 그녀는 입문하기 전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자그마한 비구니가 견본책자를 건네주며 강연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견본책자를 보곤 생각했지요. ‘어머나! 책에 나온 이 사람은 금방 이 책을 준 사람이잖아!’ (대중 웃음) 그러나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스승님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화신 스승님은 그녀 앞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나중에 입문하게 되었지요.

스승님: 여러분이 일하는 게 신통치 않으니, 내 손으로 견본책자를 나눠 줘야 하잖아요! (대중 웃음) 다

들 꺾을 피웠군요! 여러분이 내 제자를 한 명 놓치는 바람에 나 스스로 찾아다녀야 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남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사저 F:** 제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스승님과 대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체험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묻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번은 아이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수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애가 여기저기 사방에다 계속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상해서 물었지요.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자 딸은 “스승님이 오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오셨으면 스승님께만 절하면 되잖아” 하고 애기했더니 이렇게 대꾸했어요. “하지만 스승님이 계속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대중 웃음) 그래서 저도 애기했지요.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 주렴. 그래야 스승님과 부딪히지 않지!” (대중 웃음)


또 한번은 딸이 두세 살쯤 되었을 때 타이베이 비탄(타이베이에서 가장 큰 호수)의 현수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혼자 놔두고 가면서 말했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뭐 좀 사올 테니까. 만약 나쁜 사람이 데려가려고 하면 큰소리로 날 불러.” 그러자 딸은 “스승님을 부르면 돼요. 엄마는 불러서 뭐 해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또 다른 날은 딸을 데리고 동수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굉장히 큰 바위가 보이자 사진을 찍으려고 딸과 어린 동수 한 명에게 그 위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하면서 요구했는데, 사진을 다 찍고 보니 그 바위 바로 뒤가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바위 끝에 서 있었는데 하마터면 바다에 빠질 뻔했던 거지요! 전 딸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스승님이 계시서 무섭지 않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스승님이 오셨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전 정말 스승님이 오셨으리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이 나왔을 때 신기하게도 딸의 팔이 투명하게 나타났는데, 팔 중간 부분엔 뒤쪽의 바다가 그대로 비춰 보였습니다. 사

진관 주인은 깜짝 놀라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었지요.

스승님: 아마 필름이 잘못됐을 거예요. (대중 웃음)

**사저 G:** 7, 8년 전 어느 날 양명산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중간에 부인을 한 명 태워 주었습니다. 불교신자인 것 같기에 그녀에게 견본책자를 한 권 주었더니, 그녀는 책을 보자 대뜸 말했어요. “어머나, 이 스승님은 뵈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길, 그녀와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양명 센터 부근을 지나갈 때 종종 혼자 조깅하고 있는 비구니를 봤다는 겁니다. 이상했던 것은 그 비구니가 비 오는 날에도 조깅을 했는데 비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젖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당시 저는 그녀를 완리에 있는 그녀의 집까지 태워다 주게 되었는데, 중간에 양명 센터 부근을 지나게 되자 그녀가 알려줬습니다. “내가 본 그 스님이 여기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절이라곤 도통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바로 스승님이 예전에 머무신 적이 있었던 양명산 센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화신 스승님을 봤을 무렵엔 스승님은 포모사를 떠나 외국에 계시던 시기였어요. 그녀는 그 비구니가 해가 나도 조깅을 하고, 비가 와도 조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녀와 남편 모두 봤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잡지 몇 권과 견본책자 한 권을 그녀에게 주면서 어떤 사진의 모습이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오래된 견본책자에 나온 승복 차림의 스승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대중 박수)

스승님: 내가 조깅을 했는데, 왜 당신이 고마워하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내가 운동만 해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이상하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나는 양명산에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기에 가둬 두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조깅을 하면서 바람을 쐬었던 거예요! 체험 얘기를 하니 끝이 나질 않네요! (대중 웃음)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중국어>

732 긍정적인 생각의 힘

2001. 12. 30.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국제 선사

<영어>

733 고아한 이상을 갖고 살자

2001. 6. 10.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영상

<영어 + 중국어 자막>

664 인과의 법칙

1999. 8. 4. 미국 뉴욕 마리웃 호텔 단체영상

669 신의 자비

1999. 11. 27. 남아공 케이프타운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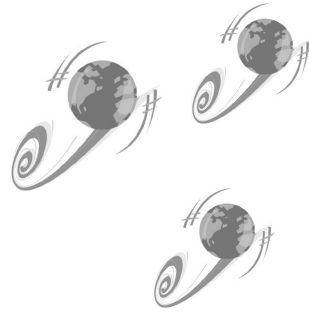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터키어 통역 + 25개 국어 자막>

665A 마음의 평정

1999. 11. 20. 터키 이스탄불 강연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중국어>

MP3-9 포모사 시후 선칠 (3개 1세트)

1990. 9. 28-10. 3.

1. 최고의 완전한 자기
2. 신실한 제자에 대한 축복- 체험 발표 (1)
3. 식사 전 기도의 유래와 방식
4. 집중에서 지해가 생긴다- 체험 발표 (2)
5. 자비와 분노의 관음보살
6. 구도심은 본인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7. 어느 수행법이 가장 훌륭한가?
8. 관음법문은 기공 수련보다 훌륭하다- 체험 발표 (3)
9. 수행은 수행의 경지를 위한 경쟁이 아니다
10. 탐욕의 결과
11. 무지가 가장 큰 죄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 에고의 극복

종원홍 사저 / 포모사 타이베이


1999년 5월 5일 스페인 마드리드 강연에서 스승님은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다.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결점과 에고, 나쁜 성향을 이기는 것이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도 값지고 명예로운 승리입니다!” 나는 스승님의 이 초세계적인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입문한 지 10년이 훨씬 넘은 나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도전들이 닥칠 때마다 연달아 실패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과 가피 덕분에 그때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계속 생활 속의 도전을 직면할 수 있었다.

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아버지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도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나는 나 자신이 다른 반 친구들보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다고 생각했다.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자 나의 에고는 더욱 커져만 가서 스승님을 제외하고는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외적으로는 꽤 원만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오만하고 고집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결혼 후 나는 완벽하고 지지 않으려는 성미 때문에 낮에 일하고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치다꺼리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바람에 바빴다. 너무나 일이 많아 숨도 못 쉴 정도였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만하고 고집스런 성격은 오히려 자신을 해칠 뿐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스승님의 도움으로 나는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시댁 식구들을 통해 나의 에고를 자르고 ‘인욕’을 공부할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할 따름이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고 결혼 전에 어머니와 올케에게서 집안일을 배운 것이다. 그것마저도 없었더라면 상황은 더 끔찍했을 것이다!

내가 입문했을 당시 포모사의 경제는 절정을 이루

어 많은 사람들이 온갖 물질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매일 채식하고 명상하는 수행자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또 일부 다루기 어려운 학생은 기분이 나쁘면 선생님에게 함부로 욕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나는 스승님이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라고 가르치신 덕분에 운이 좋았다. 그런데 그 무렵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고의적으로 남편 앞에서 나를 비웃고 수행에 대해 비방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과 남편의 냉소적인 반응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스승님은 나의 그런 사정을 아셨는지, 어느 주말 강연을 마치고 명상 홀을 한 바퀴 돌던 중 내게 링크를 하며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순간 내면의 고민과 괴로움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고 스승님의 감미로운 웃음 속에 잠기게 되었다. 사실 스승님이 통상적으로 받는 비방이나 압력에 비교한다면, 이 소소한 남들의 비웃음을 어찌 비웃음이라 하겠는가!

스승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스승님은 우리가 나쁜 습관을 없애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는데, 무수한 미묘한 에고들은 우리 자신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워 우리에 항상 ‘우주의 대감독’ 이신 스승님께 많은 상황을 안배하시도록 번거로움을 끼치고 또한 그 계임을 같이할 많은 중생들에게 짐을 지움으로써 에고를 없애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2001년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국제 선사 중 스승님이 한 동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신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을 때, 우리는 그(그녀)가 스승 대신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화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은 에고를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처방전이기도 하다. 



## 이완의 순간 개달음은 온다

청하이 무상사 / 2001. 6. 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716

### 우리는 사랑에 바다에 잠겨 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무척 기쁩니다. 오늘 온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 같군요. 때로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그것이 느껴 집니다.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것 같군요. 날아갈 듯한 기분입니다. 그냥 이완만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은 풀 한 포기, 들판의 백합화도 돌보나니.” 그러니 어떻게 신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자녀이며 하루 24시간, 아니 심지어 25시간 내내 신의 사랑과 은총에 젖어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느껴 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하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상쾌한 바람이 부는데도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더워 죽겠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친다면, 몸부림을 칠수록 더 덥고 땀도 더 많이 나고 불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지요. 바람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내 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개가 되지 마세요! (대중 웃음) 개가 새로 왔을 때는, 특히 강아지인 경우 하루종일 헉헉거립니다.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며 내 곁에만 있으려고 하지요. 내가 거기 있는데도 내 발 주위를 맴돌며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큰 방에 장난감을 가득 넣어 주고 거기서 놀게 합니다. 하지만 개는 마실 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문 주위에서 킁킁대며 침 흘리고 땀 흘리며 짊어댑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데 말이에요. 나는 개를 가둬 두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버릇이 없어서 훈련시킬 때에만 아주 잠시 가둬놓습니다. 또는 아픈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원기를 뺏기지 않도록 쉬어야 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면 내 방보다 더 큰 방을 통째로 내주고 최소한 동등하게, 아니 때로는 나 자신보다 더 잘 대해 줍니다. 개들은 내가 먹기 전에 먹습니다. 과일과 온갖 음식들을 먹지요. 난 과일과 야채를 깎아서 그들을 먹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이죠! 시자나 다른 사람이 미리 깎아 놓은 게 아니라면 나는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과일 바꾸

니를 가지고 왔다가 또 가지고 내려갑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보고 좀 먹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나 내 눈엔 과일이 보이지도 앓을뿐더러 신경도 쓰지 않고 먹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생긴 후로는 매일 과일을 깎아 먹입니다. 나 자신에게보다 개에게 더 잘하지요. 그런데도 그는 헉헉거리며 방문을 긁어대고 침과 땀을 질질 흘리며,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뭣 때문에 그러죠? “지금 바쁘니까 가만히 방안에 있어. 착하게 있으면 조금 있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갈게” 하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그는 스스로 문제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 데나, 내가 정해 준 장소가 아닌 곳에 볼일을 봅니다. 그러면 더 혼나게 되고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기, 신 안에 있습니다. 만약 신이 여기 없다면 신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요. 그렇다면 신은 아주 명철한 존재로 우리는 신을 찾거나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좀 더 이완된다면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겠지요. 여러분의 이완된 분위기를 느끼면 그쪽으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난 여러분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묻고, 그러면 우리는 멋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몇 초 간 날 붙잡고 늘어지다 야단을 맞고 개처럼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춘 채 도망가는 대신 말입니다. 여러분은 개가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어딘가에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어쨌든 편안히 이완하십시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그 모양입니다. 수행은 바깥에서 사엽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깥에선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

가야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목이나 명예, 성공을 얻기 위해 하던 모든 것들도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버리십시오. 만약 그런 분주하거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방식을 좋아한다면, 센터를 나갈 때 갖고 나가 밖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이곳에 왔으면 쉬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인이거나 예비 성인입니다. 그러니 성인처럼 행동하세요. 여러분은 고귀하고 선량하며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목을 받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여러분은 마땅히 세상의 우려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 항상 자신이 성인임을 생각하라

내 말을 믿으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는다 해도 시도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 성인이니깐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성인이라는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여러분은 성인이었습니다. 단지 인간으로 태어나 이곳에서 말은 온갖 어리석은 짓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스스로 그것을 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센터에 와서는 현재의 배역을 잊고 진정한 자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센터에 들어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인이며, 부처이며, 자신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쯤은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다. 성인으로서의 나의 시간이다. 나와 이것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여들 수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여기서 두세 시간 혹은 네 시간 동안 성인의 연습을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할 것이다.” 센터에서도 어리석은 보통 사람처럼 굴려면 어디서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고 성스럽고 완벽하고 총명하며, 깨달음과 모든 축복과 은총, 영광을 가진, 신과 같은 여러분의 진아를 그 외 어디에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게 질문하는 건 괜찮습니다. 질문을 하






면 두뇌가 만족스러울 테니까요. 그러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고귀함을 깎아 내리거나 자신의 의식을 낮추지 말고 저급한 자아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습관이 시키는 대로 어딜 가나 남에게 폐를 끼치고 무엇이든 움켜잡고 욕심을 내고 사람들을 성가시게 구는 그런 한심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신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힘이 강해지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성인임을 생각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성인이 된다거나 즉시 자신이 성인임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센터에 올 때만이라도 생각하세요. 그 때만큼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창조의 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두뇌, 마음속에 있지요. 여러분은 신이므로 당연히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든 여러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고귀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부처로 창조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계속 이런 모습을 생각해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실현됐지요.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창조하고 기억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이 확실히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성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은 잊었을 뿐이니 그 기억을 살려 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센터의 문을 들어설 때마다 여러분이 성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되며 더 많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그곳에 있으니, 여러분이 더 많이 자신을 일깨우기만 한다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습관들에 장애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자신을 우롱하지 마세요. 아주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우며 어리석어 보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고귀한 정신과 자신감에 차 있고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자신이 성인임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도 여러분은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기억해 내진 못했지만 내가 성인임을 알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성인처럼 생각하고 성인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니깐요! 늘 잊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그것을 기억하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때입니다. 세상에, 성인이 되기란 정말 쉽군요.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쉽습니다. 그저 기억만 한다면 말입니다. 

## 감로범어

청하이 무상사 / 1991. 6. 13.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안다 해도 대부분은 참회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할 수 있다면 우리 업장은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참회하려면 진정으로 수행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명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 깨달은 스승의 인도는 수행에 필수적이다

청하이 무상사 / 2001. 6. 8.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716

**질문:** 스승님, 의학계도 깨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뉴스위크와 타임지에 ‘요가의 힘’이란 기사가 실렸습니 다. 또 그들은 입정에 들 때의 생리 기능과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스승님: 때가 된 겁니다!

**질문:** 큰 기사로 나와서 아마 스승님도 보셨을 겁니다.

스승님: 아마 인정하기 어려웠겠지만, 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지요.

**질문:** 그 기사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쿤달리니 요가가 가장 쉽고 하타 요가가 가장 어렵다고 한 겁니다.

스승님: 그런 것들은 모두 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하지요. 사실 관음법문을 수행하다 보면 때로 쿤달리니가 깨어나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맨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지요.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그에 따라 다른 모든 것들도 높이 올라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낫지요. 영덩이가 큰 사람들은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요! (대중 웃음)

**질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해서 요가 수행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증상과 문제들로 인해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어떠한 나쁜 영향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만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듣고 자기 방식으로 혼자 수행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수행으로 정신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내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수행하지 말든가, 아니면 올바르게 가르칠 진정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여정 내내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스승 말이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허공에 빠질 겁니다. 그 허공이 얼마나 크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스승 없이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어떤 이수라 경계나 블랙홀을 만나 묶이는 바람에 그곳에서 영원히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우주, 특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핵 폭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끔찍하니까요. 그래도 그건 물질적인 것이라 수습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혹은 모르는 것을 괜히 건드렸다가는...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질문:** 황홀경에 관한 글에서도, 사람들이 얻은 그 경계를 맞본 후 그것을 제대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 좌절감에 빠진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해요. 요즘 세상에 스승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잘못입니다. E-메일, 웹사이트 등 사방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깐요. 무상사가 도처에 깔렸지요. 나도 컴퓨터를 켜면 나 자신이 나오는 걸 보고 말합니다. “답소사! 저게 누구야?” (스승님과 대중 웃음)

오늘날은 찾아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지요. 아마 일반 사람에게는 누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니 그냥 바람 부는대로 휩쓸려 가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나 있으니 누구에게든 무엇이 무엇이고 누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일을 하며 말을 하고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처처럼 처신하라고 한 겁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센터에서만이라도 부처처럼 행동하세요. 여기에는 부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가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부처의 숲에서 혼자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되는 데 유일한 장애는 자신을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스승님: 예, 그게 유일한 장애지요.

**질문:** 그렇게 간단한가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은 부처나 신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는 만지거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모

른다면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가 헤엄을 치고 있는 그곳이 바다인 줄 모른다면, 아무리 바다 멀리 찾아가도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지요.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히말라야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머물며 여러분 자신의 히말라야(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무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나는 끊임없이 신은 무소부재하며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농담이란 말인가요? “신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농담인가요? 아니면 예수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부처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한 부처의 말은 감정적인 믿음에 대해 그냥 농담한 거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나는 부처다”라고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만약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겠거든 부처처럼 행동하세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깨닫고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 내게 이런 힘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면 여러분의 불성이 나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되지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니! 대체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대중 웃음) 이전에는 이렇게 말할 줄도 몰랐는데.”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부처의 힘을 사용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닫는 거지요. 부처의 힘이 더 많이 발휘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이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자신의 언변과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힘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덕분에 내가 부처가 된 거지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날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난 내 불성을 한쪽에 제쳐놓고 축구나 했을 겁니다. (대중 웃음) 




## 자신의 이상을 견지하라

**질문:** 우리는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가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스런 피조물이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먼 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용기를 잃지 않을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신성한 품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외에 말입니다.

**스승님:**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들은 그들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견지하고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의 의기소침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단체명상이나

선, 강연을 하고 비디오 테이프와 책을 보며 자신을 일깨우다 보면 자기 발로 일어서서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스승이 되고 이 세상의 스승이 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는 게 아니지요. 꼭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만 스승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스승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요.

병원에는 의사가 두세 명, 많게는 열 명이 있을 뿐이지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많다고 경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수년 간 공부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질병이나 슬픔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 성인이 되려면 한 가지 법문에 전념하라

**질문:** 스승들마다 다른 스승을 찾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승님 역시 두 개의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를 배울 수 없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디에서,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인데, 왜 각 스승의 분별을 뛰어넘지 못하는 건가요?

**스승님:**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분리된 상태에서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법문을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 상반된 수많은 이론과 가르침들로 인해 방황하게 될 겁니다.

참스승들은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표현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당신과 이 스승과의 인연은 다른 스승과의 인연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많은 요소에 짓눌리면 그 것을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진보도 느려지지요. 여러분 스스로 혼란을 초래한 나머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을 가지도 못합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니까요. 여러분은 아직 어느 것이 어떤 건지 분별할 만큼 성장하거나 ‘만물동일체’의 경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리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다가 그 단계를 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인간의 수준으로나 더 높은 수준,



혹은 다른 수준으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한번에 하나씩 배우세요.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떤 영어 교수에게서 영어를 배우면 다른 영어 교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교수는 다른 교재,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테니까요. 이를테면 그는 기계에 관한 용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배관공이 되려고 공부한다면, 그는 다른 용어를 가르칠 겁니다. 두 사람 다 영어를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한번에 하나씩만 배우야 합니다.

나중에 원한다면 다른 선생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필요하니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 없겠지요. 이 선생이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믿는다면 거기에만 매달리십시오. 만약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선생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선생을 찾아 거기에 전념하십시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쇼핑’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테니까요.

신심은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의 처벌을 무서워해야지요. 가르칠 능력이 없었다면 감히 가르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 여자,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신이 두려웁습니다. 만약 내가 ‘그곳’에 도

달하지 않았다면 감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신이 두려우니까요. 내가 모른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하려 하겠습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요. 스스로 자문해 봐도 내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그건 그것이 나의 의무이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최고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나 돈, 명예 같은 것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잘못 가르치는 것이며,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것뿐이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건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임을 압니다. 우린 계속 그것을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되었다 해도 여러분 모두가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천상과 지상을 두루 찾아다녀 봐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보다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중 박수) 여러분을 개종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었기에 답할 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 나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지요. 단지 이 말로써 약속하고 맹세하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니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감로범어

칭하이 무상사 / 1991. 6. 28.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수행자들은 인과와 업장의 분위기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여유로워질 수 있지요. 수행할수록 우리 삶은 더욱 행복하고 순탄해집니다. 우리는 이 업장의 과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업장은 더 이상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보다 높이 있으니깐요.



칭하이 무상사 / 1991. 8. 18.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우리 수행자는 내면으로 향할수록 더 훌륭해집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선량한 품성과 최고의 지혜, 최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밖으로 향한다면, 우리의 그 능력과 근기, 지혜는 분산될 것입니다.



## 역경을 떨쳐 내라

제공- 풍두 사형 / 호주 멜버른 (원문 영어)

아래의 글은 인터넷에서 퍼온 것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인터넷 출처 사이트 - [http://english.hongkong.com/chain\\_email/shake\\_it\\_off.html](http://english.hongkong.com/chain_email/shake_it_off.html))

어느 날 어떤 농부의 나귀가 말라 빠진 우물에 실수로 빠져 버렸다. 농부가 나귀를 구해 내려고 몇 시간이나 궁리하는 동안 나귀는 계속해서 애처롭게 울어댔다. 마침내 농부는 나귀가 이미 늙어 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 우물은 어쨌거나 메워야 하니 나귀의 고통도 덜어 줄 겸 이웃 사람들을 불러 우물을 메우기로 했다.

사람들이 모두 삽을 쥐고 우물 안으로 흙을 퍼 넣기 시작하자 나귀는 이내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고는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그러다 잠시 후엔 의외로 조용해졌다. 몇 삽을 떠 넣다 우물 안을 내려다본 농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귀가 자신의 등에 던져지는 흙을 털고선 그 흙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닌가! 이웃들이 나귀의 등에 흙을 퍼부를 때마다 나귀는 그것을 한쪽에 털면서 한 발자국씩 올라서더니 이윽고 의기양양하게 우물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놀란 사람들 사이를 빠져 나와 유유히 사라졌다!

나귀의 경우와 같이 삶은 우리에게 온갖 흠더미를 퍼붓는다. 그 우물에서 빠져 나오는 비결은 그것을 털어 버리고 한 걸음씩 올라서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각 장애물들은 우리 등에 퍼부어진 흙과 같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쉼 없이 포기하지 않고 털어 버린다면, 그것은 한 걸음씩 올라설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나귀를 물어 버리려고 했던 일이 나귀로서는 오히려 축복이었다. 자신의 역경을 잘 다루는 것, 이것은 삶의 미궁에서 빠져 나오는 열쇠 중 하나이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과 비참함에 빠지지 마라. 우리를 묻으려고 따라다니는 역경들 속에는 대부분 우리에게 이익과 축복을 주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힘을 키워 목표를 향해 용감히 전진하라.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희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 나가야만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역경을 떨쳐 내고 한 발 올라서서 우물 밖으로 나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 행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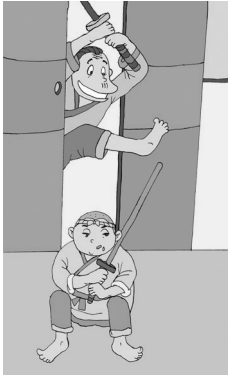
1. 가슴에 증오심을 품지 말 것.
2. 마음속의 근심을 없앨 것.
3. 단순하게 살 것.
4. 더 많이 줄 것.
5. 기대는 적게 할 것.





## 일본 검도 스승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 1994. 5. 21-27. 포모사 타이베이 국제 선철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429



예전에 검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검도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술이지요. 그 남자는 한 검도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스승은 그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신실하게 청했습니다. “저를 가르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기서 지내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닥도 쓸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밥과 바느질도 하고 또 스승님의 신발도 닦아 드리며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무척 숭모합니다. 언제든 가르치고 싶으실 때 가르침을 주십시오. 원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히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가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동안 스승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매일 지루한 허드렛일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다시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스승은 때때로, 이를테면 한밤중에 곤히 잠들어 있을 때나 낮에 밥하고 마루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 갑자기 손에 검을 쥐고 나타나 기합을 넣으며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지요. 요리할 때도 한껏 경계하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조차 수시로 이쪽저쪽을 살펴야 했습니다. (대중 웃음)

여러분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식과 똑같군요. 나는 지금도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스승님 웃음) 욕실에 갈 때도 근처에 카메라가 숨어 있진 않은지, 아니면 제자들이 몰래 훑쳐보진 않는지 살펴야 하지요. 이렇게 24시간 내내 ‘선’을 하고 있어야 하니, 정말 ‘참담’합니다. (대중 웃음) (중국어로 선(禪)과 참담하다(慘)는 발음이 같음.) 전에는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지만 이젠 이

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요. 때로 내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여러분을 찾아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계단 근처에서나 밥을 먹다 나를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나는 항상 여러분이 흠쳐볼까 겁내고 여러분은 내가 갑자기 나타나길 기대하니 우리는 언제라도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대중 박수)

자, 다시 검도 스승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마침내 그 제자는 아주 유명한 검도 스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스승은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나는 그런 정식적이고 평범한 방식이 아니라, 비정식적인 방법을 사용해 갑자기 목검을 들고 나타나 공격을 해댔습니다. 제자가 요리나 목욕을 할 때, 심지어 한밤중에 잠에 빠져 있을 때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제자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이름있는 검도 스승이 될 수 있었지요.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번 “아, 지금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선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도 변화무쌍할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단지 상황을 어떻게 잘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공부하느냐에 달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배우고 24시간 내내 선(禪)에 머물러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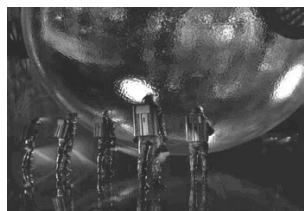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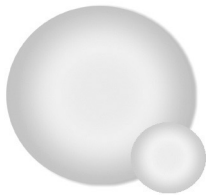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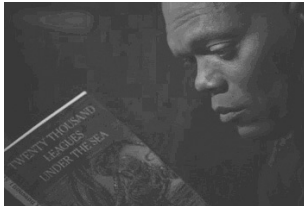


# 스피어(Sphere)

장르: 공상 과학  
미국 영화협회 등급: PG-13

## 생각의 힘에 얽힌 교훈적 이야기

타이베이 뉴스그룹 린진핑 사형



어느 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도 바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미국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이런 초능력을 한순간에 갖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룬 ‘스피어(Sphere)’는 관객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영화 초반부에서 심리학자인 노만 존슨은 인간과 외계인의 접촉 가능성을 논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라는 허위 연구 보고로 미국 정부를 놀라게 한다. 그의 연구서에는 동료인 수학자 해리 애덤스, 천체 물리학자 테드 윌링, 그리고 생물학자인 베스 헬퍼린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복해 있는 인물들이다. 즉 노만은 어린 시절부터 해파리와 바다뱀을 무서워했고, 해리는 오징어를 싫어하며 베스는 자살 성향을 갖고 있다.

NASA는 해저 수천 피트 아래에 있는 우주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외계인의 유물로 간주한다. 이에 위에 언급된 바 있던 엘리트 과학자들이 모이고, NASA 소속 해군 대령인 헤럴드 반즈의 지휘 하에 그 요원들과 함께 해저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오래지 않아 그들이 마주친 것은, 입구는 없지만 생명체가 있는 듯한 거대한 금빛 구형 물체(sphere)! 나

중에 그들은 이 금빛 스피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바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탐사 과정 중 스피어를 본 과학자들은 아직 자신에게 그런 초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실현되어 서로를 해치게 된다. 결국 끔찍한 사고의 연속으로 많은 과학자들과 요원들이 죽고 해리와 노만, 베스만이 살아 남는다.

재난의 시초는 어렸을 때부터 해파리를 무서워했던 노만으로부터 시작된다. 노만은 비키라는 인물이 잠수를 하는 순간 이전의 공포심이 일어나 부지불식간에 두려워하던 해파리 무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 그로 인해 비키가 죽게 된다. 다음으로 해저 괴물에 관한 책을 읽다가 오징어를 싫어하는 잠재의식을 상기시킨 해리는 꿈속에서 거대한 오징어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들의 해저 기지가 공격을 당해 심한 손상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마지막으로 자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베스는 시한폭탄을 설정한다. 이 인물들의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이 탐사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또한 많은 인명을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세 사람은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구조 잠수함을 타고 탈출을 시도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교전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육지로 올라오는 데 성공한다.

육지로 돌아와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보고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그들의 해저 탐사는 많은 인명을 앗아 가고 해저 기지 및 수십 억 달러의 장비들을 손상시켰는데, 누가 이런 꾸며낸 이야기 같은 그들의 말을 믿어 주겠는가? 어떻게 수천 피트의 해저에 초대형 오징어와 해파리 무리, 바다 뱀이 존재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던 말인가? 게다가 거대한 금빛 구형

물체가 그들에게 초능력을 줬다는 말은 더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해저 기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는데, 어떻게 이 세 사람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들 세 사람의 초능력은 여전히지만, 생각하는 순간 악몽에 나타났던 괴물이 자기 침대 옆에 나타날까 두렵기만 하다. 그러니 그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스피어가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훗일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나쁜 사람이란 누구란 말인가?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엘리트 과학자이며 또한 평소 훌륭한 시민으로 살았지만, 이런 마력이 생기고 나서는 온갖 비열하고 뒤틀리고 기괴한 생각들로 서로를 해쳤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우리가 비록 생각을 즉시 실현시키는 초능력을 갖게 됐지만 오히려 우리

가 일으킨 마음은 결코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훌륭한 선물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다!” 그리고는 금빛 구형 물체와 초능력 등 모든 일을 잊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이 신기한 스피어는 원래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지만, 인류의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 오히려 엄청난 재앙만을 가져온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수행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왜냐하면 수행을 한 후 우리 또한 이런 초능력을 서서히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영화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레야만 신이 주신 그 어떤 선물도 잘 활용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무리 많은 선물과 축복을 준다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하이넷(Hinet) 채널 137을 통해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이 방영을 시작한 이래, 이 웹사이트는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전세계의 보다 많은 영어권 구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각 편마다 영어 자막이 새로 첨가되게 되었다.

현재 ‘예술과 영성’ 제40편, 45편, 48편, 52편은 이미 영어 자막이 들어가 있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 획기적인 주차 방법

청하이 무상사 / 1999. 10.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처음으로 운전을 배운 한 젊은이가 차 사이에다 주차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진을 하다 뒤차를 ‘쿵’ 하고 박더니 이번에는 앞으로 차를 빼다 또다시 앞차를 ‘쿵’ 박았습니다. 그렇게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앞뒤의 차들을 들이받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가 참다못해 물었어요. “당신은 주차를 귀로 하나요? ‘쿵, 쿵, 쿵’ 소리가 나야 주차할 수 있나 보죠?”



## 할머니의 집은 어디인가

청하이 무상사 /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어떤 남자가 친구의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그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다가 한 할머니가 아이를 꼭 안아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죠. “저분은 누구니?” “우리 할머니예요. 크리스마스를 지내러 오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 좋겠구나. 그럼 할머니는 어디 사시는데?” “공항에 사세요.” 대답을 들은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싶어하실 때마다 거기 가서 모셔 오거든요!”



## 늙은 생강이 매운 법

청하이 무상사 /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75세의 억만장자가 18세의 꽃다운 금발 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물었지요. “어떻게 했기에 18세의 아가씨가 일흔 다섯이나 된 자네와 결혼할 마음이 생기게 했지?” 노인은 말했지요. “그녀에게 내가 아흔 아홉 살이라고 했더니 서둘러 결혼하려고 그러던걸!”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36/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6/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36/jk1.htm> (미국)

# 농사를 통해 얻은 생활선(生活禪)

구술 티엔 사형 / 중국 본토  
기록 중국 뉴스그룹

티엔 사형과 그 가족은 중국 북부 산간 벽지 마을에 살고 있다. 그들이 작년에 겪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루 회자되고 있는데, 동수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 준다.

2001년 봄, 중국 북부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관개시설을 갖추지 못한 티엔 사형의 60에이커가 넘는 농지는 그대로 말라붙었다. 관개시설이 된 농지 역시 마을 계곡 물줄기가 오래 전에 말라 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별다르진 않았다. 산의 들풀들도 누렇게 말라서 마치 가을이나 된 듯한 진풍경이 펼쳐졌다. 아무리 땅을 갈아 봐도 마른 흙만 나올 뿐이었고, 맨 겉쪽 흙은 바람 불면 휙 날아갈 정도였다. 파종을 할 때가 다가왔지만, 하늘은 비 한 방울도 내려 주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땅을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며 흉년이 될 것임을 예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종자와 비료만 버리고 애쓴 보람도 없을 것을 생각해 농사를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루하루 지나 마침내 비가 내렸다. 그러나 너무나 적은 양이라 아무 보탬도 되지 않고 뒤집어 놓은 땅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계속 관망만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티엔 사형과 가족들이 나귀를 끌고 산 위로 올라가 씨앗을 뿌리자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다. 또 티엔 사형이 칭하이 스승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다. “당신네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소. 당신의 신과 스승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될 테니!” 티엔 사형은 본래부터 말재주가 없는 데다 스승님을 따르고 나서부터는 말을 많이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농사는 짓지 않은 채 신이나 부처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티엔 일가가 산비탈에서 나귀를 몰고 고생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그들은 회의의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비가 아주 적게 와서 예년처럼 파종할 순 없었기 때문에 티엔 사형은 얇게 심어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수분이나마 쟁기질을 한 후에도 땅 속에 남아 있게 되고, 갈아엎은 마른 땅은 햇볕으로 인해 수분이 바로 증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티엔 사형은 당시 이렇게 생각했다. ‘가축을 기르는 데는 씨앗보다 몇 배나 많은 비용이 들지만 사람들은 이런 건 개의치 않으면서 도리어 씨앗과 비료에 드는 적은 비용엔 배 아파한다. 정말 세상은 거꾸로 되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비가 적게 왔어도 한번 시도해 보자.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은가.’ 신기하게도 그가 땅을 다 일구자마자 비가 내렸다. 많지는 않았지만 물은 땅에 스며들어 마른 지표면의 흙과 다소 축축한 땅 밑의 흙을 한데 결합시켰다. 이어서 몇 차례의 비가 더 내렸고 티엔 사형은 때를 잘 맞춰 그때마다 바로 땅을 갈아 수분을 유지했다. 물론 작년보다 고생은 많았지만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가 뿌린 대부분의 종자는 잘 자라났다!

가을이 되자 온 산비탈에 있는 경작지 중 티엔 사형의 땅만 푸르게 빛이 났고 수확도 거둘 수 있었다. 비록 전년만큼 잘되진 않았지만 먹을 만큼 남겨 두고도 수천 근을 팔 수 있게 되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는 흉년이 들든 말든 티엔 일가가 심는 대로 따라해야겠어. 그럼 틀림없을 테니까!” 하고 결심하기도 했다.

티엔 가족들이 추수한 곡식은 집안을 가득 채웠으나, 이젠 파는 것이 큰 문제였다. 예년 같으면 상인들이 곡식을 사러 직접 찾아왔을 텐데, 그 해엔 발길이

뚝 끊겨 싸게 팔려고 해도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형 가족들은 매일 함께 명상하다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 냈다. 좁쌀을 세밀히 분류해 여러 등급을 매기고는 티엔 사형 부부와 큰딸이 팔러 나가기로 한 것이다. 세 사람은 각자 25킬로그램의 좁쌀을 자전거에 싣고 새벽마다 20리가 넘는 현에 도착해 길가에서 좁쌀을 팔고, 팔다 남은 좁쌀은 시장에서 다른 생필품과 교환해 가지고 돌아왔다. 스승님의 보살핌으로 장사가 잘되어 전년보다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 2002년 음력 설이 되기 전까지 남은 곡식을 모두 팔아 순이익만 4천 인민폐가 남았다. 또 매일 자전거로 40리를 왕복한 덕분에 몸도 튼튼해져 명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티엔 사형의 부인은 자신들의 행운에 대해 지혜롭게 잘라 말했다. 그들은 맨 처음 스승님을 따라 수행을 시작했을 무렵에 다른 집처럼 수입원의 하나로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농사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한정적이지나 부수적으로 가축을 길러야 생활을 보충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티엔 가족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이해하자 다시는 가축을 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축을 죽여 단기간의 이익을 얻는다지만 사실상 그 중생의 고통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길이 없으며, 이런 행위는 자신을 고통과 재앙의 나락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자기 가족의 변화에 대해 티엔 사형은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가 스승님을 믿고 신을 믿는다면 신은 분명히 우리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티엔 사형이 말해 준 또 다른 기적. 어렸을 때부터 놀기만 하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을 갓신히 마쳐 사실상 문맹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스승님을 따르고 나서 스승님의 책을 볼 때 갑자기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책이나 신문은 여전히 읽지 못한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사일과 가축을 기르는 일 외에 유일한 돈벌이는 버섯을 따는 것이다. 그러나 버섯을 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장사는 경쟁이 치열했고, 이에 티엔 가족은 약초를 캐기로 했다.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 일은 잘못된 게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캐낸

약초 뿌리에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은 매우 가슴 아파하며 다시는 이런 쪽의 일을 하지 않았다. 농사는 불가피한 일이고 그에 따른 살생도 불가피하다지만, 약초를 캐는 일은 선택의 폭이 있으니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은 한 점 의심 없이 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돌보기 마련이다. 그 후 티엔 사형은 집 근처 산에서 흰색 꽃이 핀 야생 파발을 발견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오후 시원할 때 명상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 파를 뽑고, 집에 와서는 파를 깨끗이 씻어 분류해 병에 넣어 포장한 것을 큰길 가에 있는 큰 식당에 조미료로 팔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식당들이 사형네 집까지 찾아와 파를 사 갔고 이 장사는 이제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되어, 해마다 생활비와 근처 현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수업료를 대고도 생활이 상당히 여유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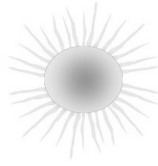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다고 해서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티엔 사형의 말은 명백히 옳은 것이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끼 먹고 나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할까 늘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수행을 시작한 후 ‘눈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 지면 돌아오는’ 그들의 운명엔 변화가 없었지만 스승님의 사랑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즐겁고 큰 욕심 없는 성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즐거운 분위기 속에 특별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제 티엔 사형 일가는 부지런히 일해 얻은 넓은 집에서 온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고 있다.

신은 이 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당신의 은총을 내리셨다.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줄 관음법문과 모든 중생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청하이 스승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심을 갖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착실하고 평온하게 살아간다면, 신의 전지전능한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축복할 것이다. 티엔 사형 일가가 증명하듯이 말이다. 





첫 번째 이야기



## 만물동일체 (萬物同一體)



만물과 동일체인 스승님은 모든 중생의 기쁨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시며 아무리 작은 중생의 아픔도 못 보신다. 다음의 일화를 통해 일상 중에 자연스레 나타난 성인의 애정 어린 세심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 장작 속의 작은 생명까지

시후 센터 주위의 산림에는 죽은 나무와 마른 나뭇가지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끓이고 밥을 할 때 가스는 거의 쓰지 않고 불을 지피곤 했다. 어느 날 스승님은 한 장주가 장작불을 지피자 바로 달려와 불속에서 나무를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어찌 이리 조심성이 없나요? 불 피우기 전엔 반드시 나무 속에 벌레나 작은 생물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했잖아요. 특히 개미는 대나무나 나무 구멍에 숨는 걸 좋아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스승님은 중생들이 불속에서 고통스러워하자 바로 그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다.



### 다섯 번째 제자

스승님이 예전에 머무셨던 감나무 정원의 감이 붉게 익어 가자 스승님은 제자들에게 감을 따라고 하시면서도 “다 따지 말고 몇 개는 새들을 위해 남겨 두라”고 특별히 당부하셨다. 새들은 우리 주방에도 자주 찾아왔는데, 스승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들에게 줄 신선한 물 한 사발과 쌀밥을 조금씩 준비해 두라고 지시하셨다.

스승님이 시후에 계실 때 한번은 “석가모니불에겐 비구, 비구니, 남자 재가자, 여자 재가자 등 네 무리의 제자가 있었지만, 나에겐 다섯 종류의 제자가 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신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제자는 바로 수시

로 찾아오는 새들과 떠돌이 개, 풀을 뜯어먹으러 종종 담을 넘어오는 이웃의 소와 양, 닭과 같은 동물들이었다.

사람들만 스승님 곁에 붙어 있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동물들도 스승님을 보면 좋아해서 스승님이 각국을 다니시며 강연하시거나 잠깐씩 그 지역에 머무실 때면 이 ‘다섯 번째 제자들’이 스승님을 찾아와 딱 붙어 떨어지지 않은 했다.



##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다

어느 날 스승님과 우리는 시후 센터 근처의 산에서 이야기하고 웃으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스승님이 발길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셔서 우리도 덩달아 모두 멈춰 섰다. 스승님은 대나무 지팡이로 가볍게 땅을 두드리시며 뒤에 있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해요. 여기 나비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비는 길 한가운데 앉아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만물과 동일체이신 스승님과 마주쳐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눈먼 코끼리 떼’에게 짓밟혀 살아 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 하루는 산을 거닐던 스승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없던 장주의 이름을 부르셨다. 나중에 이 일을 그 장주에게 알려주자 그녀는 그제야 상황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원래 그녀는 텐트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스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스승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순간 위험한 고비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 천리만리도 듣는 스승님

한번은 스승님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고 나는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다. 수도꼭지를 틀어 팔팔 물이 흐르는 와중에 나는 조그맣게 대중 가요를 흥얼거렸는데, 물소리 때문에 내 노랫소리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멀리 부엌에서 스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오불은 안 외우고 엉터리 노래나 부르고 있다니!” 나는 그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 먼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스승님의 귀는 두렵기 짝이 없다!

사람들마다 각자 고유한 진동과 자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승님께 입문한 후에는 우리가 떠올리는 사소한 생각이 방출하는 ‘뇌파’도 스승님께 불편을 끼친다. 스승님은 마치 거대한 수신기처럼 늘 온갖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신다. 그래서 스승님 곁에 있으면서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도(道)에서 벗어나면 스승님께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면의 소리는 우리를 더 높은 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


든 면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히 이해할 것이며, 마침내 우주의 그 어떤 구석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만물동일체가 되어 그 어떤 중생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청하이 무상사 / 1993. 10. 18. 일본. 원문 중국어. 비디오 No.382)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우리 각자가 ‘만물동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두 번째 이야기

# 수정세계의 밤



어느 날 밤, 스승님은 시후에 있는 유리집 앞에서 『나르빠 수행 이야기』를 읽어 주시기로 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영문판 정장본을 보고 오늘도 근사한 밤을 보내게 되리란 걸 알았다! 평상시 스승님은 이야기를 읽어 주실 때 사전을 찾는 일이 매우 드물었는데, 그날 밤은 특별히 시자에게 사전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셨다. 그 책은 밀교 경전을 번역한 책이라 전문 용어가 많아서 스승님은 우리에게 책을 읽어 주시기 전에 미리 번역해 보시는 등 매우 신경을 써 주셨다. 나르빠는 티베트의 위대한 요기인 밀라레빠의 스승으로 구도 당시 온갖 굴욕과 시험을 거쳤는데, 스승님의 뛰어난 이야기 솜씨로 이 전기집은 원본보다 수천 배나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절정으로 치달았고, 우리 마음은 모두 고대 티베트를 떠돌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스승님이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는 밤도 한참 깊어 밤이슬이 촉촉이 내려 있었다. 스승님은 모두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건넨 후 다시 유리집에 들어가 계속 책을 읽으셨다. 사면이 모두 큰 유리로 되어 있어 ‘유리집’이란 이름이 붙은 이 작은 건물의 창에는 이슬이 방울방울 수없이 맺혀 있었다. 거기에서 스승님의 가냘픈 형체를 아른하듯 비추는 스탠드의 불빛이 금빛으로 은은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마치 수정세계에나 나올 법한 꿈결같이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 세 번째 이야기

# 침 없이 일하시는 스승님



스승님은 밤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밤이 되어 만물이 정적 속에 잠자고 떠들썩한 분위기도 차츰 가라앉고 모두들 꿈나라로 갈 때 성인은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은 스승님께서 한 여자 장주에게 당신 방에 와서 자라고 이르셨다. 다음날 그 사제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어서 모두들 궁금해했다. 알고 보니, 스승님이 전날 밤 그녀에게 많은 일을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지시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떠올리느라 그런 것이었다. 우리가 왜 필기구를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자러 가는데 필기구가 필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고 대답했다. 그 일 이후, 우리는 스승님이 주무시러 간다고 말씀은 하셔도 실은 주무시지 않고 쉼 없이 밤새도록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3년 세계 순회 강연을 위해 포모사를 떠나시기에 앞서 스승님은 타이베이 국부 기념관에서 훌륭한 강연을 하시며 포모사 사람들의 사랑과 갈망을 들어주셨다. 강연 전날 밤 스승님은 갑자기 시후의 보물정에 보관되어 있던 『장자』가 필요하단 전갈을 보내셨다. 말씀을 전해 온 사람은 가능한 빨리 그 책을 찾아 타이베이로 보내 달라고 했다. 다음날, 스승님의 강연 주제는 ‘노장(老莊)과 천상의 음악’ 이었다. 그 후 스승님은 인도네시아에 가셨을 때도 노장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하셨다. 스승님과 있을 때는 이렇게 즉흥적인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또 언젠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내가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자러 가야겠다고 생각한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티베트의 계록파를 창시한 종카파 스승에 대한 책을 찾는 스승님의 전화였는데, 시계를 보니 한밤중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그 시간에도 스승님이 아직 책을 읽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자 내 졸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네 번째 이야기

## 스승님의 노트


한번은 스승님의 책장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루스리프 노트 한 권이 내 눈길을 끌었다. 아무렇게나 노트를 펼쳐 보니 스승님의 우아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몇 줄만 보는데도 너무나 강력한 힘이 느껴져 감히 자세히 읽을 생각을 못하고 황급히 노트를 덮었다. 그 노트는 정말 소박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은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노트였는데도 스승님은 귀중한 영감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다.

스승님은 정말 단순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워 스승님을 보필할 때 스승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종종 놓치곤 한다. 한동안 대중 강연을 하실 때 스승님은 휴지를 뽑아서 그 것을 일러 ‘지혜 주머니’ 라고 농담하신 적이 있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승님께 노트를 드리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밤에 영감이 떠오르면 스승님은 휴지에 적어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시로 영감을 기록하기 위해 스승님의 침대 옆에는 언제라도 글을 적을 수 있도록 조그만 손전등이 준비되어 있다.

어느 날 스승님께서 우리 사무실을 들르셨다가 내 책상에 놓인 노란색 포스트잇을 보시고는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마냥 기뻐하시곤 갖고 가셨는데, 나중에 외국에 나가실 때도 갖고 나가셨다. 이 편리한 포스트잇이 사무실에서 사용된 지는 제법 오래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스승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스승님이야말로 가장 필요하신 분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또 스승님 방에 달력을 두는 것도 잊곤 해서, 스승님은 종종 전화로 오늘이 며칠인지 물어셔야만 했다. 스승님은 천의나 천상의 보석, 만세등을 디자인하실 때도 겨우 몇 가지 색의 펜만으로 사용하실 뿐이었고 수정액도 없기 일쑤였지만,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변변찮은 도구를 사용하시곤 하셨다. 우리는 온갖 색깔의 펜들을 갖고서도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반면, 위대한 디자이너인 스승님은 단지 몇 가지 색만으로도 온 우주를 그려 내신다! 

## 재미있는 우리 스승님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오후, 시후는 마치 비가 오락가락 무덥고 우중충했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스승님의 주방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여자 장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곧이어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 와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웃음소리가 난다는 건 아무 일 없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스승님이 누군가에게 폭죽을 몇 발 쏘시게 하고는 “폭발 소리에 무서웠는지”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시키신 것이었다. 장난기 많은 스승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유쾌한 마음이 들어 음침한 분위기를 일시에 날려 버렸다! 

## 감로범어

청하이 무상사 / 1993. 3. 8. 싱가포르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327

우리가 똑똑하다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국가에서, 혹은 지구 상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청하이 무상사 / 1992. 1. 12.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진아나 개인의 품모를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본래 모습으로, 진성(眞性)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카리스마적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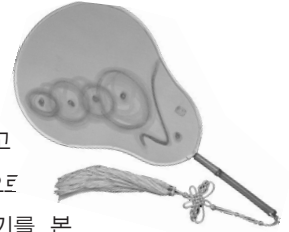
독일의 유명 여배우

## 하이드마리 벤젤(Heidemarie Wentzel) 씨와의 인터뷰

(원문 독일어)



하이드마리 벤젤 여사는 독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뛰어난 TV 연기자다. 그녀는 생생하고 노련한 연기로 극중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 냈으며 써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연기를 본 대중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 깊은 인상을 잊지 못한다.



20세 때부터 독일 연예계에 들어선 벤젤 여사는 섬세한 연기력과 아름다운 우아한 모습을 갖춰 그녀가 주역을 맡은 TV 연속극은 독일 TV 방송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줄곧 수없이 많은 연속극의 주연 여배우로 자리잡아 오며, 독일의 잡지 Lexicon der DDR-Stars가 즐겨 취재하는 유명 인물이기도 하다. 아래 내용은 벤젤 여사가 자신의 연예 경력과 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다.

**질문:** 왜 연기자가 되려고 생각했습니까?

벤젤: 쉽게 답할 문제는 아니군요. 아마 배우가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대부분의 유럽인처럼 나 역시 모든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나 원인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내가 연기자가 된 건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한 느낌 때문이었죠. 전 늘 시와 희극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관중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쉴러(독일의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열세 살 때 쾰른 학교에서 쉴러 탄생 200주년 기념식이 열렸을 때 그의 시를 낭송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의 어떤 구절은 매우 영적이어서 당시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나름의 직감을 통해 청중들에게 그 시의 세계를 전달했고 청중들은 완전히 거기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자 제 동기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때 전 예술에 대한 저의 사랑과 열정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격려와 인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 들어서기로 마음 먹었지요. 당시엔 이 직업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

도 이 길을 결심했습니다.

**질문:** 무대에서 대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벤젤: 관중의 환호와 갈채는 공연 예술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반응입니다. 무대에서든, 촬영장에서든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의 감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인물의 내적인 절규와 고뇌를 관객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신을 열어젖히고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심리적인 장애도 극복해야 하지요. 관중의 환호가 배우의 노력에 대한 인정임은 의심할 나위 없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연기자들은 공연하는 동안에도 관객들이 몰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공연이 끝난 후의 박수갈채는 여전히 큰 위안입니다. 진심 어린 그 반응에 정말 감사하게 되지요.

**질문:** 청하이 스승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벤젤: 스승님을 알게 된 건 정말이지 축복이었습니다! 1996년에 뮌헨 센터의 한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많은 지혜로운 동수

들을 만나고 또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영적인 안내자를 찾고 있었지만, 우리가 접한 모든 교리들은 영적인 본질 요소들이 빠져 있는, 그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외적인 형식만 있을 뿐 경전과도 부합하지 않았고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런 망망대해에서 진리를 찾던 중 스승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느낌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신의 힘이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침 그날 시청한 비디오에서 스승님은 예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예리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가르침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 스승님만이 내 마음속의 질문들에 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스승님을 직접 뵈 행운이 있었는데, 그 후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입문을 통해 내면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청나게 성장하여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처음 스승님의 비디오를 봤을 때부터 제 직감은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왔던 그것이며, 결코 이것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프랑스 파리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만나셨던가요?

벤젤: 예, 파리에서 열린 천의 패션쇼에서였어요. 스승님은 그날 굉장히 재치가 넘치셨지요. 우리가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려고 하자 스승님은 왜 그렇게 서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떠나려던 참이라고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서두르지 말고 이리 와요.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라고 말씀하시더니 뮌헨으로 돌아가려던

우리 일행 네 사람을 안아 주셨습니다. 전 대경실색하며 생각했지요. ‘맙소사! 어서 몸을 떼야 해. 신을 껴안을 순 없잖아! 이건 너무 불경스런 일이야!’ 제 마음을 읽으신 스승님은 그 즉시 절 놓아주셨습니다. 전 금세 후회막급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곧 제 이마에 당신의 이마를 대시더군요.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은 항상 각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간파하시곤 그에 따라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승님과 함께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스승님의 예술 세포가 절 감동시켰나 봐요. 우리 두 사람 다 예술가와 연기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스승님에 대해 더욱 친밀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내 모자는 삼각형’이라는 재미있는 독일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저는 베를린에서 그 노래를 배웠고 스승님은 뮌헨에서 배우셨더군요. 그 후 우리는 아주 가까워졌지요.

**질문:** 당신에게 예수님을 상기시켰던 특별한 체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벤젤: 남아공 국제선에서였어요. 스승님이 명상 장소로 걸어 들어오시자 모두들 너무나 행복해하며 그 주변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동수들을 바라보는 스승님의 눈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무런 에고나 선입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전 평생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결혼생활도 행복했고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또 좋은 친구들도 많지요. 하지만 스승님의 눈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신의 사랑을 봤을 때, 전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그 순간 예수님 역시 그렇게 자비로운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보살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이고 생생로운 체험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질문:** 다시 칭하이 무상사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벤젤: “스승님, 사랑해요!” 그 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 저 자신이 아주 하찮게 느껴지는 동시에 아주 위대하고 행복하게도 느낄 겁니다. 그러니 “스승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말이 없지요.

**질문:** 대중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벤젤: 모든 진정한 구도자들을 위해 이런 말이 있지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진리를 찾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 스승님을 만나고 스승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은총, 그것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후기: 하이드마리 벤젤 여사와 그녀의 남편(독일의 유명한 감독 헬무트 니츠케)은 스승님을 만났을 당시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지만, 살아 있는 스승을 만나고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행운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스승님의 지혜와 진리의 가르침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공부한다. 지면을 빌려 관음법문에 정진 중인 이 수행자 부부가 지구에 창조한 그들의 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신의 사랑의 바다를 누리길 진심 어린 기원을 보낸다. 

이 멋진 인터뷰는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제50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웹사이트- <http://137.hichannel.com.tw> (독일어)

## 깨달음의 상태

칭하이 무상사/ 2001. 6. 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716

깨달은 사람은 인간으로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동시에 그들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인간 노릇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세상에, 난 성인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없어!”라고 하며 문제를 일으키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문제없어.” 이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으면서 또한 저기(스승님이 하늘을 가리키심)에도 있습니다. 문제없지요. 두 상태는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하며 자신이 정말 누군지 압니다. 또 그 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24시간 내내 ‘난 성인이다! 성인이다! 성인이다!’ 라고 생각만 한다면 아무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먹거나 마시는 것도 즐겁지 않겠지요.

# 자아의 완벽한 본질을 믿으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습관이 많아도 여러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재생해 내는 여러분의 두뇌, 컴퓨터입니다. 결코 자신을 그런 나쁜 습관들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들을 없애고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의 부분이나 삶의 방식은 모두 계속 견지해 나가십시오. 수행 진보에 있어서나 심지어 세상의 평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것은 모두 없애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적이니까요. 그것뿐이지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은 자신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것은 나쁜 사람들이나 나쁜 환경에 어울리는 바람에 얻게 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이 내 곁에 오면 사탕을 얻겠지만, 생선 가게에 가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생선에 닿거나 스친 것만으로도 비린내가 납니다. 소위 우리가 ‘나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능할 때마다 나쁜 습관을 하나씩 없애면 됩니다. 흡연과 같은 나쁜 습관들을 없애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바로 없앨 수 없다면 자신에게 일주일이나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실패하면 새로 시도하고요. 꽤넘치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생물을 해치지 못하고 개미 한 마리도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미 결

어다니는 천사가 되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지요. 설령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입문식에서 배운 대로 행하고 매일 명상을 통해 영혼을 키우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저 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래 바다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파도는 바람과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바다처럼 항상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파도가 생겼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람이나 지구의 자전을 탓하세요. 바다가 이 지구 표면에 있는 한, 파도는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파도 하나를 없애면 다른 파도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나쁜 습관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내일은 전에 있는지도 몰랐던 새로운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두뇌에 기록해 둔 것들을 발견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질투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은 “아,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면 좋지 않은 거구나” 하고 배우곤 두뇌에 그것을 기록해 둡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라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지금 질투해. 질투할 때야. 네가 질투해야 할 상황이라니까!” 하고 두뇌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단지 표면적인


칭하이 무상사/ 1999. 12. 30.  
태국 방콕 국제 선육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77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모든 나쁜 습관은 표면적일 뿐,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빛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그런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깊이 이해할지는 모르겠군요. 지금은 머리로 이해하겠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정말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혹여 무언가를 잘못해도 그것도 완벽하게 합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단지 잘못됐을 뿐이지요. 어쩌면 이 일이 잘못된 건 다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나쁜 상황을 거쳐야만 마땅한 사람이나 올바른 것을 만날 수 있기도 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신의 손에 내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결코 자신을 탓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어떤 나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이니까요. 그런 것은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대중 박수)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없애 버리세요.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내가 그랬듯이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든,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될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도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또 이런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요! 

## 독립심을 배우라

칭하이 무상사/ 1989. 2. 13-18. 포모사 시후 선철 (원문 중국어)

MP3-4

우리는 독립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혼자였듯이 죽을 때도 당연히 혼자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독립적일수록 자신이 더 가치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시험을 받고 갈고 닦아지면 우리는 무슨 일에도 단련되어 쉽게 속거나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 마음 역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모두 우리를 공부시키는 기회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진보하게 되지요. 내가 여러분의 응석을 받아 주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보하고 있으며 점점 더 자신감이 커지고 독립적이 되고 책임감이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응석을 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지요! 센터에 새로 왔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아 낯설게 느껴집니다. 동수들은 모두 냉정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텐트는 자기 손으로 쳐야 합니다. 밥도 자기가 펴야 하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러나 조금 참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와, 굉장한걸! 난 참아 낼 수 있어. 별것도 아니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할 수 없던 일도 지금은 할 수 있고, 전이라면 참을 수 없었던 상황도 지금은 참아 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엔 신경 쓰던 조그마한 ‘나’에 대해서도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 홍콩 소식

### 양로원 방문

홍콩은 해마다 양로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설 양로원의 설비와 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세상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낸다는 것을 주목한 동수들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6월 22일 '안강(安康) 양로원'을 방문했다. 이 양로원에는 30여 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귀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동수들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겁게 참여하고 동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는 등 다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홍콩 동수들이 많은 채식음식과 공연, 재미있는 게임 등을 준비해 양로원을 방문하다.



## 필리핀 마닐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합 보도

(원문 영어)


### 스승님의 사랑이 머나먼 나병촌에 이른다

2001년 9월 어느 일요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로스앤젤레스 센터는 필리핀 쿨리온 나병촌의 베니시오 알바노 촌장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노란 종이 조각에 서툰 영어로 씌어 있었다. 촌장이 편지를 쓸 제대로 된 종이나 프린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나병촌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 주는 것 같아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LA 센터는 마닐라 센터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이메일을 보냈다.

마닐라 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쿨리온은 팔라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150마일 떨어져 있다. 섬의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옛날 생활방식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섬 주민의 대부분은 신경체계를 손상시키고 심한 고통과 기형적인 모습을 유발시키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쿨리온 나병촌은 병이 전염될까 봐 방문객도 거의 없어서 주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염되어 나병에 걸리고 많은 고아와 사람들이 갈 곳도 없이 시장 뒷골목이나 노변 등 아무 곳이나 거처를 잡고 있었다. 현재 이 섬은 돈과 쌀, 식품 및 기타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나병촌의 촌장은 LA 센터에게 기금을 보내 주길 희망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LA 센터 동수들은 미화 2,195달러의 성금을 보냈다. 성금은 마닐라 센터가 알바노 씨에게 전달했고 알바노 씨는 그 후 마닐라 센터 앞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 왔다.

LA 동수들의 경제적인 도움 덕분에 많은 콜리온 주민들이 자기 집을 짓고 생활도 나아지게 되었다. 동수들은 재정적인 기부 외에도 그들의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함께 보냈는데, 이 형제자매들은 견본책자를 꼭 잡고 얼굴에 대며 스승님의 사진에 감사의 키스를 드렸다.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콜리온 나병촌 주민들은 이제 근심걱정을 한결 덜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감사 편지 

필리핀 공화국

팔라완 콜리온 자치시 바랄라 부락 푸농 사무소

2002년 4월 8일

칭하이 무상사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미국 캘리포니아 LA 센터에서 보내 주신 미화 2,195달러의 성금을 기쁘게 잘 받았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지역의 불우한 사람들, 특히 콜리온에서 수용,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와 고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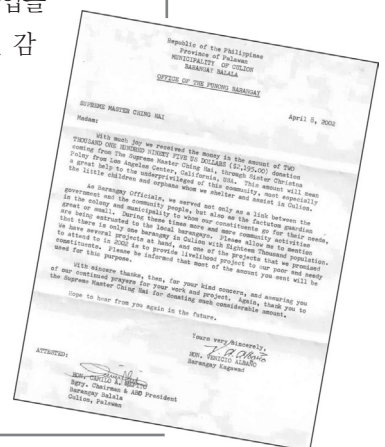
공무원으로서 우리는 정부와 지역민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 민들의 크고 작은 요구들을 돌보며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욱 더 많은 지방 사업활동들이 부락 사무소에 맡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구 1만 8천 명의 콜리온에는 단 하나의 사무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들 중 2002년에는 빈민들의 생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보내 주신 기금은 이러한 목적에 쓰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협회의 자비로운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귀 협회의 모든 사업들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후일 또 다른 소식으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바랑게이 카가와드의 베니시오 알바노 배상

공증: 팔라완 콜리온 바랄라 부락 사무소 주임 총재 카밀로 A. 페리토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9-865026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chinghai@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meloo.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meloo.com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br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formax@ifxbrasil.com.br
★ 칠레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eter@sinfon.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송시온	센터	595-21-662895 paraguay_asuncion_10@yahoo.com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Armand Laplante	613-740-1017 er574@freenet.carleton.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oceanoflove@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에리조나 :	센터	1-623-581-0725
	Mr. & Mrs. Kenny Ngo	1-602-264-3480 kennynngoaz@hotmail.com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j@arkansas.net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e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anawarskas@hotmail.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1-718-567-0064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dong@phys.columbia.edu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1-716-256-3961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uccess@coachdebra.com
		sfcenter@hotmail.com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James_Le@adapttec.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77@aol.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bellsouth.net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Mr. & Mrs. Sang-Yoon Lee	1-773-261-4033	
		ilovesuma@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캔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매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ce77@bigplanet.com	
미시간 :	센터	1-248-370-2924	
		smmicenter@yahoo.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lps.org	
네바다 :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 Mrs. Nghiem The Trung	1-856-667-3829	
		albert_nghiem@hotmail.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l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뉴욕 :	Mr. & Mrs. Zhihua Dong		
*로체스터	Ms. Debra Couch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v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mechat@email.msn.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DNgyuen376@aol.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ly@hotmail.com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아시아***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armenhovhannisyan@hotmail.com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Mr. & Mrs. Loh, Shih-Hurng	886-2-23756784	
		shloh@ndmctsg.edu.tw	
미야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카오슝 ★ 홍콩	Mr. Chu, Chen Pei Mr. & Mrs. Zeng, Huan Zhong 센터 연락인 사무실	886-37-724726 886-7-7534693 852-27495534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제주 센터 ★ 마카오	064-99-6113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853-532995
★ 인도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조호르 바루	Mr. Chiao-Shui Yu Mr. & Mrs. Chi-Liang Chen	60-4-7877453 607-6622518 supreme2@tm.net.my
캘커타 ★ 이스라엘	Mr. Ashok Sinha Mr. Yaron Adari	91-33-655-6741 972-9-866-6881 yadari@zahav.net.il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6012-259-5290 klgcp@hotmail.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자카르타	Mr. Agus Wibawa 센터	62-81-855-8001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gym99@hotmail.com
	Mr. Tai Eng Chew Ms. Lie Ik Chin	62-21-6319061 62-21-6510218 financel@uei.com	★ 몽골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바가누르 ★ 미얀마 ★ 네팔 카트만두	Mr. & Mrs. Gursad Bayarsaikhan Mr. Sai San Aik	976-121-21174 951-667427
수라바야	Mr. I Ketut P. Swastika 센터	62-21-7364470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Harry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포카라	센터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마젤랑 말랑	Mr. Njo Kwat Gone Mr. Judy R. Wartono	62-293-367-031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욕야카르타	Mr. Henry Soekianto Mr. Augustinus	62-341-325-832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tb.biglobe.ne.jp	★ 필리핀 ★ 싱가포르	Mr. Raj Kumar Lama 마닐라 센터	977-61-31413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 스리랑카 콜롬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태국 방콕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70927 jean@sol.lk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센터	662-674-2694 bkk_c@hotmail.com
영등	영등 센터	054-532-5821 houmril@kornet.net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치앙마이	Mr. Wu Peir Yuan	66-1-8248294
	유태인 이지자	02-795-3927 02-599-1701	하얏이 콘겐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217080 66-53-387126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센터	66-74-368329-30(c/o 155)
	송호준 황상원	051-957-4552 051-805-7283		센터	66-43-261878
	이원석	051-894-6645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신현창	063-254-5824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이재문	032-244-1250	★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148 hugo_berton@hotmail.com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김익현 한선희 차재현	053-633-3346 053-767-5338 053-856-3849	플로브디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김수동	042-254-7309		Mrs. Marcela Gerlov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2-394-6552 enlightenment@hanmi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Mr. Yu Xi-Qi	34-96-3726401
★ 핀란드			valenciachinghai@yahoo.es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surfeu.fi	오레	hang.nguyen@spray.se
★ 프랑스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파리	센터	33-1-4300-6282	말피	widlund@hem.utfors.se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r. & Mrs. John Wu	46-40-215688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스톡홀름	wu.john@telia.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 스위스	46-8-882207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제네바	mats.gigard@telia.com
★ 독일			Ms. Feng-Li Liu	41-22-7973789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s. Klein Ursula	fengli@ilo.org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 영국	41-22-3691550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스톡홀름	44-1782-414989
		49-581-15491	런던	l.wellers@ntlworld.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HamburgCenter@gmx.de	센터	44-208-3742743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서리	pnl@matters19.freemove.co.uk
★ 그리스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스코틀랜드	stmchwo@hotmail.com
★ 네덜란드			에든버러	44-131-6660319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thuong5@cs.com	Mrs. Annette Lillig	lillig@btinternet.com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오세아니아 ***	
★ 헝가리			★ 호주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hu	에델레이드	Mr. Leon Liensavanh
	Mr. Lux Tamas	36-309-611994	브리즈번	618-8332-6192
지울	Ms. Dora Seres	36-1379-1924	센터	leonadelaide@hotmail.com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Mr. Gerry Bisshop	briscentre@hotmail.com
★ 아일랜드			Mrs. Tieng Thi Minh Chau	617-3847-1646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unison.ie	Mr. & Mrs. Yun-Lung Chen	617-3715-7230
★ 노르웨이			Mr. & Mrs. Ray Dixon	ctieng@telstra.com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Mr. & Mrs. Khanh Huu Hoang	617-3344-2519
★ 폴란드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612-6689-1282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캔베라	rayandjulie@linknet.com.au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멜버른	61-2-6259-1993
로드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센터	smcanbra@cyberone.com.au
★ 포르투갈			Mrs. Rosemary Nagtegaal	Melbsmch@aol.com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lisbon_center@hotmail.com	Mr. Pham Van Bon	61-3-9307-6982
	Mrs. Deborah e dos Santos	351-0-96-618-7249 quanyindaugther@yahoo.co.uk	Mr. Alan Khor	61-3-9470-4573
★ 러시아			Mr. David Robert Brooks	61-3-9857-4239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퍼스	61-8-9242-1189
★ 슬로베니아			Mr. Ly Van Tri	61-8-9418-6125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Mr. Eino Laidsaar	daveb@iinet.net.au
★ 스페인			Mr. Hong Bo	61-8-9244-7661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hongbo_huang@hotmail.com	61-2-9477-5459
	Ms. Lidia Kong	34-91-7756670	뉴질랜드	61-2-97887588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오클랜드	Mr. Anton Toia
발렌시아	Ms. X.C. Wang & Ms. X.C. Yang	34-96-3336208	크라이스트처치	649-419-4470
			해밀턴	nzanton@yahoo.com
			넬슨	649-277-9285
			타우랑가	takahide@xtra.co.nz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647-849-4442
				647-858-3355
				hamnzcont@yahoo.co.nz
				64-3-5391313
				shale@ihug.co.nz
				647-544-5268

# 평생을 함께할 여름 린넨 시리즈!

낭만적인 SM 천의 남성복



무상예술

최근 선보인 SM 천의 시리즈는 로맨틱한 남성용 여름 셔츠다. 주 소재인 '섬유의 여왕' 린넨은 땀 흡수와 열 분산성이 뛰어나며 항세균, 부식 방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비스코스 레이온을 합성했다. 때문에 새로운 남성용 셔츠는 통기성이 뛰어나고 쉽게 구김이 가지 않는다. 크루 넥 셔츠와 폴로 셔츠는 모두 활동하기에 편하고 자유로우며 다른 옷들과도 무난하게 어울려 무덤고 긴 여름날 출퇴근용, 평상복, 외출복으로 그만이다. 이제 남성들도 이 멋진 SM 천의를 입고 거리를 나설 수 있게 되었다!

## 크루 넥 니트 셔츠 - 세 가지 디자인

1. 베이지색. 칼라와 가슴 부분에 'Celestial' 과 별집 모양의 무늬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다. 간단하고 우아하다.
2. 베이지색. 칼라와 가슴 부분에 'Celestial' 이 새겨져 있다.
3. 앞 칼라 앞 가운데 부분이 V자로 파임. 앞뒤로 고풍스런 중국 문양이 들어가 있는 복고풍의 디자인으로 착용시 한결 젊어 보인다. 파랑, 베이지, 린넨 천연색 등 3가지 색상. 남녀 공용.

## 폴로 셔츠 - 세 가지 디자인

1. 베이지색. 칼라 끝이 100% 린넨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슴 부분에 세 줄이 가로로 들어가 있으며 매력적인 문양이 그 사이를 장식하고 있다.
2. 베이지, 린넨 천연색 등 두 종류. 활동적인 다이아몬드 문양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 부분에 가로로 SM 로고가 들어가 있다.
3. 베이지, 연노랑 등 두 종류. 가슴 가운데 부분에 세로로 SM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세로 줄대로 다이아몬드 문양과 파도 문양이 새겨져 있다. 깔끔하고 우아한 스타일.

이 외, 더운 여름에도 하루종일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소식 하나! SM 천의 팀은 100% 린넨을 소재로 한 양말을 선보였다. 이 양말은 땀 흡수력이 뛰어나며 곰팡이와 냄새를 막아 발을 위생적으로 보호하고 무좀을 방지할 수 있다.





# 최신 만세등

‘천국의 문’, ‘천상의 비’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만세등에 처음으로 사용된 대나무는 고대의 풍미와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천국의 문’ - 디자인이 매우 독특한 이 천장 램프는 4단계 조명 장치(은은한 야간 조명, 온화한 야간 이중 조명, 야간 및 주간 조명, 밝은 주간 조명 등)로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만세등의 또 다른 특징은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는 천국의 문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한다.



천국의 문

◀ ‘천상의 비’ - 빗방울을 형상화한 수많은 작은 대나무 조각으로 연결되어 정교하기 그지없다! 바람이 살랑일 때마다 대나무 조각들이 한들 한들 춤을 추며 천국의 비가 지상을 적실 듯하다. 스승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다. “나는 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비가 올 때마다 나를 생각하세요! 비는 천국의 축복과도 같습니다. 천국과 지구를 연결하는 메시지 같지요. 그래서 난 비를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것이며, 비는 내 영혼을 달래 줍니다.” ‘천국의 비’ 만세등을 켜고 싶노라면 마치 신의 사랑의 바다에 잠긴 듯한 느낌을 준다.



천상의 비

영혼의 고양

##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스승님의 강연이 최초로 CD로 발간됨에 따라 일반 CD플레이어나 컴퓨터만 있으면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어〉

727 나눔의 공부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행사

이 특별한 CD는 지난 크리스마스 국제 선사 중 스승님이 포모사 및 대륙 동수들과 만나셨을 때 얘기하신 중국어 법문이다. 이 자리에서 사제간의 깊은 정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한편, 스승님은 수행에 관련된 동수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다. ‘일반적인 명상과 관음법문이 모두 빛을 볼 수 있다면, 이 두 법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마야는 우리 단체를 파괴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는가?’, ‘관음법문 수행을 통해 날마다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수들은 많은 내적 체험을 갖는다. 어느 편이 더 나은가?’ 등등 이 심오한 질문들에 대한 스승님의 절묘한 분석을 들어 보시길.